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는 원죄 이후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이 된다. 얼마나 감사한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저주에서 나올수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순간 나오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을 이길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단은 이미 우리에게 정복되었다. 우리에게 사단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지금은 사단이 이긴 것 같아도 끝을 가보면 확실히 알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간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남겨놓으셨다.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거의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다. 너의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뜻이다.

마 4: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전도에 대한 전문성 필요 없다. 나를 따라오면 전도 된다는 뜻이다.

막 3:13-15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 함께 있으려고 부른 것이다. 함께 있으면 전도도 되고 귀신도 나가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오랫동안 이 언약안에 있었다. 그래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 때로는 낙심되는 때도 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많은 증거로 알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증거들을 볼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개인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자기 때에 이루시는 것이다. 혹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했다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새로운 응답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언약으로 살고 언약으로 전쟁하며 살면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다 하나님 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답을 주셨는데 언약을 답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병중에 하나는 이 언약을 답으로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도를 할 때도 이것을 답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그저 생각 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한다. 이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한 답이라는 것이 늘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데 자주 잊어버린다. 이스라엘백성들의 광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고난이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일을 포기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원죄의 운명에서 해방되었지만 하나님의 운명에는 갇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운명처럼 갇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가장 안전하다. 이 주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언약확인하고 깊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1.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 25장은 24장부터 말세에 대해 이야기 하는 중에 예화를 하나 든 것이다. 24장 이야기에 연결되는 것이다.

1절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들의 한 행동이나 그것 때문에 온 결과가 다 천국의 원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열 처녀 비유중에 있는 이 메시지가 천국하고 밀접하고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말세에는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니 참고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따로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다섯은 등만 준비했다. 이것이 포인트이다. 슬기로운 다섯명은 기름도 따로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명은 등만 준비했다. 그런데 신랑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안온 것이다. 그래서 등만 있는 처녀들의 등은 다 타서 꺼져가는 것이다. 그 기름도 따로 준비한 사람은 다시 기름을 넣어서 등을 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래서 등만 준비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기름을 따로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구원의 잔치에 들어간 것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구원의 잔치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딱 하나, 기름을 준비했냐이다.

그러면 이 기름이 무엇인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받는다. 결론적으로 이 기름은 믿음이다. 왜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성경에도 보면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 이게 같은 단어이므로 기름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조금 구분은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믿을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전하고 영접시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이 바뀌는 것이 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믿었는데도 성령님이 안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것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끝이라는 말을 하느냐, 믿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님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요 10: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들은 구원 받은 자를 말한다. 만일 성령님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 이런 표현은 할수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가고, 믿으면 다시 들어오신다면 '결코'라는 단어는 쓸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보면 불신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렸단든지 하는 것은 없다. 이처럼 우리가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하고 싶으면 이 성령님으로 해석해야 한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성령님을 잘못 해석해서 눈에 보이는 역사같은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성령님의 눈에 보이는 역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구원 받고 난 이후의 문제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구원 받는 순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성령님의 역사, 기적같은 것이 조건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자는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믿는자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들어가신다. 그때 구원의 완성되는데 그것을 보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기름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가? 성령이라고 해석 안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믿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한 선행조건, 즉 먼저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성령

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기름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들어오실 수가 없다. 이것이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다는 다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언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성령보다 더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이다. 성령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조건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보혈에 벗어난 역사는 절대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약속안에 있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름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것은 너도 이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다. 그 날과 그 때를 연구해서 알고 있으라는 것이다. 날과 때는 몰라도 괜찮다.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 없다. 그래서 그 날과 때를 아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전부 깨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의 흐름에 보면 문이 닫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면 문 닫히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성령을 잘 모르는 분은 성경 좀 아는 사람이 이상한 단어 쓰면 넘어가버린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을 알고 있으면 성경을 몰라도 넘어가지 않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끝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말하지 않았다. 인간의 어떤 조건, 지식, 경험들은 절대 조건 될 수 없다.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지 않는다. 돈은 엄청 많지만 헌금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 대신 안타까운 것은 죽으면 그만인 것을 땅에 쌓아 놓는다는 것이다. 천국에서 상급도 없이 죽는 것이다.

말세에는 믿음 준비 되어 있으면 모든 준비 끝났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최고의 선물이다.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구원에 대해 늘 영광을 돌려야 한다.

2. 때가 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다. 때가 있다는 것이다. 문 닫히면 끝이다. 그 전에 기름 준비해야 한다. 그 기름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시간표가 있고 말세가 되면 그 끝이 오게 되어 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나갔다. 아마 그들은 기름을 못 구했을 것이다. 이 미 구원의 문이 닫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세상에 믿음이 남아 있겠는가? 세상에 이 믿음을 전해줄 전도자가 남아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 모든 전도자들은 혼인잔치에 다 들어왔다.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받은 자를 모은다고 하셨다. 이 때는 밖에 나가봐야 구원 없다. 본문은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달라 했지 우리도 믿음 있으니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혹시, 이것은 신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오늘 핵심에 맞춰서 말하면 그렇다. 혹시 그들의 나가서 믿음을 구했다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 주실것인가? 오늘 메시지에 맞추면 문 안 열려야 한다. 전체 구원에 대한 원리로 보면 믿음 있으면 문 열려야 한다. 믿음 있는자는 구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때가 있다는 것이다. 문 닫히면 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밖에 나가봐야 믿음을 못 구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설교에서는 별로 할 필요가 없는 말이지만 한 이유는 포인트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이 있다. 문 닫히면 끝이다. 그 전에 구원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고 아무도 열지 못한다.

계 3: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분이 예수님이시다. 문 닫으면 아무도 못 연다. 우리는 이런 말세의 징후가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물론 24장 말씀에 보면 이것은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끝을 보고 살아야 한다. 세상에 마지막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에 있어야 할 것을 적어놨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랬

는데 지금은 다 이렇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룩해 지는 것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싸우더라도 사람들은 돈을 차지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싸움들도 예전에는 양심적으로 룰을 지키면서 했는데 그 룰들이 다 깨져가는 것 같다. 룰을 깨는 것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후에 사도바울이 정사와 권세를 말한 것이다. 사람들이 한을 품고 있다가 기회만 오면 죽이는 것이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밖에서는 선한 척이라도 했다. 그리고 배신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딤후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다.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다.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이다. 너는 앞에서 나열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 목표는 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나 인간성 지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 언약을 전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언약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언약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딤후 3:7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이 변해가면서 배우는 것은 너무나 많고 항상 배우지만 결국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무나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말이다. 특별히 렘넌트들, 젊은이들은 마음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들도 이길수 있는 비밀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단어가 전부 사단의 단어이다. 이길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237, 치유, 서밋하는 것이 아니다. 237 모든 나라가 이런 상태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육신 질병은 말할 것 없고 영적 질병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는가. 전부 사단에게 잡혀 있는 단어들이다. 그래서 치유는 세월이 갈수록 필수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말세가 가까이 갈수록 지구 전체가 정신병동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서밋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 영적 답을 줘야 한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영적으로 사람을 살릴수 있는 답이 있으면 그거 하나로 인생 먹고 살 것이다. 우리는 이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하여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은 다 되어 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영적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서밋이다. 세월 흐르면 영적 힘 없어도 답만 잘 알고 있으며 서밋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답이기 때문이다. 다른 답은 없다. 답을 가진 자가 서밋 아니면 누가 서밋인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말세라고 하면 걱정먼저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모든 문제를 내 믿음 하나 때문에 해결해주시는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미래는 우리의 시대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어디에 가도 답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 서밋이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밋이다. 복음을 누리고 깊은 기도가 있으면 더 서밋이다. 이 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것이 행동하는 서밋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VIP되는 것이다. 얼마전에 토티야기를 봤는데 토티 이것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구할수 있었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는 말세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망하는 시대에 노아는 달랐다. 언약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가지고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가족도 살고 짐승도 살았다. 그 방주를 가지고 다음 세상을 준비했다. 말세를 보는 우리가 가져야 할 포인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언약으로 잡고, 특별히 렘넌트들이 힘을 얻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237운동하고 많은 전도자와 제자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세우고, 많은 교역자들 세워야 한다. 사역자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 모두 이 주간에도 깊은 영적 누림과 함께 우리 개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담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